

민주, 시·도당위원장 地選 공천 기구 참여 금지

지역위원장 공천 관리기관 참여 제한

조승래 “이해관계자 표결 배제 의무화”

김병기 처리 문제 놓고 당내 ‘속얹임’

공천현금 수수 의혹에 휩싸인 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에서 시·도당 위원장의 공천 관련 기구 참여를 금지하기로 했다.

당 지방선거기획단은 8일 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시·도당 공천관리위원회 구성 지침을 마련했다고 조승래 사무총장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조 사무총장은 “시·도당 위원장의 참여를 금지하는 한편, 지역위원장은 필수적 인원을 제외하고 공천관리 기구에 참여하는 것을 제한했다”며 “실제로 이런 지침이 제대로 시행됐는지 중앙당에서 점검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런 조치는 최근 불거진 김병기·강선우 의원의 지방선거 공천현금 수수 의혹에 대한 대응책으로 풀이된다.

앞서 김병기(서울 동작갑) 의원이 동작구의 원으로부터 공천현금을 받았다는 의혹과 강선우(서울 강서갑) 의원이 2022년 지방선거 당시 후보였던 김경 서울시의원(강서구)으로부터 1억원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이어 조 사무총장은 “(공천 과정에서) 이해관계자의 표결 배제를 의무화하겠다”며 “본인 지역과 관련된 사항, 친인척 등 이해관계자와 관련돼 있을 경우 공천 심사에서 배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조 사무총장은 “공천 ‘컷오프’ 시 사유를 명확히 기재하도록 하겠다”며 “공관위 심사 과정에서 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과 최고위원회의결로 부적격 예외를 적용할 수 있는데, 그 근

거를 명확히 기록·공개할 것을 (시·도당에) 요구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조 사무총장은 “공천관리기구의 운용과 관련해선 회의가 진행되면 반드시 공개 브리핑을 통해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했다”며 “공천 관련 자료, 제보와 투서 등을 어떻게 보존하고 관리할 것인지 규정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보궐선거의 경우 전략공천 원칙을 분명히 했다.

조 사무총장은 “현재 2곳이 대법원 (당선무효형) 선고가 났고, 최종 4곳에서 보궐선거가 결정된 상태”라며 “많은 10곳까지 예측되는 보선은 전략공천 원칙으로 경선이라도 전략 경선이다. 다양한 방식으로 경선하고 중앙당 공관위에서 후보자를 공천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민주당은 각종 비위 의혹으로 원내대표직에서 사퇴한 김병기 의원의 징계 절차를 두고 속얹임하고 있다.

당내에선 조속한 조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지만, 공천현금 수수를 비롯한 특혜·갑질 등 잇따라 불거진 의혹의 사실관계를 확정 짓기 위해선 ‘속전속결’로 처리하기 어려울 것 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어서다.

당 윤리심판원은 예정대로 오는 12일 회의를 열어 김 대표 의혹을 논의할 계획이지만 당일 결론을 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MBC 라디오에 출연해 ‘12일 징계가 결정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당도 답답하고, 국민과 함께 에타게 기다리는 중”이라며 “급하다고 해서 실을 바늘하리에 묶어 바느질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고 말했다.

/김진수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결심공판을 하루 앞둔 8일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을 비롯한 여당 법제사법위원들이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법정 최고형 구형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尹 ‘내란 우두머리’ 재판 오늘 종료…구형 주목

비상계엄 ‘분류’ 기소 1년 만 변론 종결

법정형은 사형·무기뿐…특검, 구형강화의

12·3 비상계엄 관련 사건의 ‘분류’ 격인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변론이 9일 마무리된다. 지난해 1월 현직 대통령으로 처음으로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이후 약 1년 만이다.

12·12 군사반란 주모자인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 이후 약 30년 만에 내란 혐의 사건에 대한 법적 평가가 이뤄지는 셈이다. 그런 만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형량에도 이목이 쏠린다.

그동안 이 사건의 공소유지를 해온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는 8일 오후 특검보를 비롯한 주요 간부들을 소집해 구형량을 정하는 회의를 진행

할 예정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부(지괴연 부장판사)는 9일 오전 10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의 변론을 종결하는 결심공판을 연다.

결심공판에선 특검팀의 최종 의견과 구형, 변호인의 최후변론, 피고인의 최후진술이 이뤄진다.

윤 전 대통령 외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 김용균 전 제3야전군(3군)사령부 한병대장(대령), 조지호 전 경찰청장, 윤승영 전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 등 내란 중요인물 종사 등 혐의를 받는 주요 인물들에 대한 결심도 함께 진행된다.

전체 피고인이 8명에 달해 공판이 늦은 시간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최대 관심사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형량이다.

내란 우두머리죄의 법정형은 사형과 무기징역, 무기금고형 세 가지뿐이다. 특검팀도 이들 가운데 하나를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조계에서는 12·12 군사반란과 관련한 내란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이 비교 사례로 거론된다.

특검팀은 재판 내내 윤 전 대통령이 무력으로 정치적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 권력을 독점·유지하고자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시각을 유지했다. 개인의 권력욕을 위해 민주주의와 법치를 무력화한 죄책이 크다고 보는 만큼 사형 또는 무기징역을 구형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많다.

1심 선고는 다음 달 법원 정기인사 전에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연합뉴스

민주, 오는 12일부터 1월 임시국회

2차 종합특검법·민생법안 처리 방침

한정에 “특검 반대 국힘 국민 우롱”

더불어민주당은 8일 국민의힘을 향해 2차 종합특검 법안과 민생 입법의 국회 본회의 처리를 촉구했다.

한정에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의힘은 (12·3 비상계엄에 대해) 국민께 사과를 하겠지만 내란 청산을 위한 2차 특검은 안되고, 민생은 챙기겠지만 민생 법안을 처리하지 않겠다고 한다”며 “이는 모순의 극치고 명백한 국민 우롱”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한 정책위의장은 “국민의힘은 2차 특검을 즉각 수용하고 민생 입법 처리에 적극 동참해야 할 것”이라며 “민주당은 1월 임시국회를 바로 열어서 산적인 민생 법안들을 최대한 조속히 처리해 나가겠다”고 부연했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회의 후 브리핑에서 “오늘 중 1월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할 예정이며, 12일부터 1월 임시회가 열리게 된다”고 말했다.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일정과 관련해선 “19·20일께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청문회 실시를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김진수기자

李대통령 지지율 2%p 오른 61%

민주당 39%·국민의힘 23%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비율이 61%로, 2주 전보다 소폭 상승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8일 나왔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5·7일 만 18세 이상 1천5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이날 공개한 전국지

표조사(NBS)에서 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긍정 평가한 응답자는 직전 조사인 2주 전보다 2%p 오른 61%로 집계됐다.

부정 평가 응답은 29%로 지난 조사보다 3%p 내렸다.

전 지역에서 긍정 평가가 부정 평가보다 높았으며 대구·경북(49%)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긍정 평가가 과반을 기록했다.

정부의 경제정책별 긍정 평가비율은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 정책’ 62%,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정책’ 50%, ‘일자리와 고용 정책’ 46% 순으로 나타났다. 주택·부동산 정책은 부정 평가(61%)가 긍정(36%)보다 높았다.

정당별 지지도를 보면 더불어민주당은 39%, 국민의힘은 23%를 각각 기록했다. 지난 조사와 비교해 민주당은 2%p 내렸고 국민의힘은 3%p 올랐다.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은 각각 3%를 기록했다. /연합뉴스

실내파크골프장 이용안내 (전국80개) 유명구장

● 18홀 (1회/이용료8천원) ● 10회권/6만 ● 20회권/10만

1:1 교육	★왕초보 레슨반		기본자세, 공치기, 경기방법		1주완성/6만
	★구장 실전체험		80개 스크린구장/경기체험		초보,자격취득과정
	자격증 취득반	파크골프,지도사2급		개인별,수시접수 (이론,실기) 2급/누구나 가능	▶ 2급/28만 ▶ 1급/35만 ▶ 심판/10만
		파크골프,지도사1급			
		파크골프,심판/강사1급			

■ **자격취득반/수시접수** ▶ 자격취득까지 추가비용 일체없음
(응시료+교재비+이론교육(영상)+실내실습(자격취득시까지 무료))
* 자격취득 즉시 스크린파크장 무료이용권 10장 제공 / 합격 축하 기념

티샷·퍼팅샷·어프로치샷/
개인연습/이용자10분 무료

안내문의 : 010-9163-7897 / Tel. 062-369-0070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1089
(화정새마을금고 4층), 농성역 4번 출구 방향